

시 심사평*

임동환

5·18항쟁 30주년을 앞두고 5월 항쟁이 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분한 이야기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서사내지 신화의 창조다. 그것들 없이 80년 5월 광주에 여전히 동어반복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, 무엇보다도 80년 5월은 한낱 역사 속의 한 기억에 불과할 것이다.

5·18문학작품 공모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. 새로운 서사와 신화적 구성 속에서 거듭 생생한 현재로 태어나는 '광주 5월'을 기대하는 것이다. 최종심에 오른 <로마제국흥망사>, <가마솔원형경기장>, <소나 닭이나>, <블랑코의 잃어버린 코를 찾아서> 등의 작품들은 일단 이러한 기준에 들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알레고리 수사법은 여전히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. 즉 이들의 시들이 결국 80년 5월을 노래한 무수한 작품들처럼 여전히 80년 5월의 문제를 선악 내지 이분법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.

당선작인 <시계>의 투고자의 작품은 우선 그런 알레고리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다. 무엇보다도 한 세기가 지나가는 시점(時點)에서 새로운 시계(視界). 다시 말해 한 세기를 매듭지으면서 또 다른 세기를 맞이해야 할 80년 5월의 문제를 '고장난 시계(時計)'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 당선자의 큰 정진을 기원한다.